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47.62	↓ 코스닥	863.37
	(+6.13)		(-7.30)
↓ 금리 (연율)	3.321	↓ 환율 (원/달러)	1330.90
	(-0.004)		(-3.60)



m-커버스토리

‘현역불패’ ‘비명횡사’ 인적 쇄신은 없었다

22대 총선 공천결과 분석

7일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령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여론 절반 이상 ‘현역 교체’ 응답 22대공천 유권자 요구 충족 못해 여당 ‘현역불패’ ‘친윤공천’ 비판 야당도 교체율 20% 정도 불과

거기에도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



지난달 28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용화여객차 동차 차고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홍보하는 ‘버스타고, 정책보고, 투표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시스

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가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륙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포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 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외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당사자 의견 미수렴·사직 목적 등 쟁점

법적분쟁 옮겨간 의대증원 교수협의회, 복지부장관 결정 무효 집단행동 판단에 개별적 사유 반박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법적 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단체 소송에 이어 개별 취소 소송, 집행지 가처분 신청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교수 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은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위험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2주간 주어지는 소명기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전공의

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여기도 쟁점은 남아 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한 것을 개별적 사유에 의한 단순 사직이나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개별적 사유’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올해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가를 찾고 있다. 한 대형 입시학원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도 수강할 수 있는 야간특별반을 개설해 이달 중순 개강을 앞두고 있다.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강반 모습. /뉴스시스

첨단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5년간 60배 심화

의대 쏠림 가속화 땀 초격차 흔들 해외 기술협력, 주요국 대비 최하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이 향후 5년간 60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해외 기술협력도 주요국 대비 꼴지 수준으로 나타나,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절대적 규모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196억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다.

개별 국가단위의 예산·인력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나 기술 교류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만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총연구

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확대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인원은 2019년 기준 인구 만 명당 39.0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49.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동훈 “중앙정부가 지방 직접 지원할 법률 개정안 발의할 것” /사진 뉴스시스
- ▲ ‘소나무당 창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협상 제안

- ▲ 정당 공천평가, 국힘 ‘못한다’ 42%, 민주 ‘못한다’ 53%
- ▲ 여 공관위, 인요한에 비례대표 요청… “본인 의지에 달려”



- ▲ 개혁신당, 스포츠투토 규제 완화 공약 발표
- ▲ 이재명, ‘비명횡사’ 논란에 “당원·국민이 뽑은 혁신공천” /사진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착공기념식에서 착공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시

“GTX-B로 인천서 강남 ‘30분’ 교통·산업지도에 혁명적 변화”

尹 대통령, 18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러한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람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관광체험공간으로 인천공항지역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개장한 인천공항복합리조트와 연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 기업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 가 깎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세계최대 취 글로벌 기업 유치

5000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0년간 10조 생산유발효과

4년간 인천신항에 1조 투자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

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형 항공사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비용 항공사(LCC)의 육성방침을 밝히며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 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를 이루는 한편,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 소음과 공해, 먼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부지 90만평(297만㎡)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월드체인 특

화구역’을 만들어 우리의 프리미엄 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 세관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전체 재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K-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전시관과 문화행사장, 호텔, 쇼핑, 관광시설까지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해 ‘인천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 공동화된 인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밝히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의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끝으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선 공약이기도 한 GTX-D·E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며 지하철 5·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천에서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민 금융이해력 OECD ‘5위’

한은, 조사참여 39국 중에선 8위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총점은 평균대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 OECD 산하 경제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집계됐다. 조사참여 39개국 중 8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금융지식 ▲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금융행위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식구조인 금융태도를 포함한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직 같은 위기때 대응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금융태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태도의 문항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등이 반영돼 있다. 금융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의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3점으로 OECD 평균(55점)보다 낮았다. 디지털 금융지식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반면 디지털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작년 기업·자영업자 대출금 92조 늘어

한은, 전년비 증가폭 절반가량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년간 9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지원이 줄면서 대출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20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출금은 분기평균 23조

원으로, 2019년(2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 증가한 대출금이 이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1년간 26조4000억원(6.1%) 증가했다. 4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는데,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1조2000억원(4.4%) 늘었다. 4분기는 부동산거래량이 둔화되며 부동산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금융·보험업의 차입이 늘며 11조9000억원 늘었다. /나유리 기자

AI 등 4개 신기술인력 4년간 6만명 부족

» 1면 ‘첨단 과학기술’서 계속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 4만7000명으로 5년 사이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약화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 44억1700만달러로, 2001년 이후 만성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이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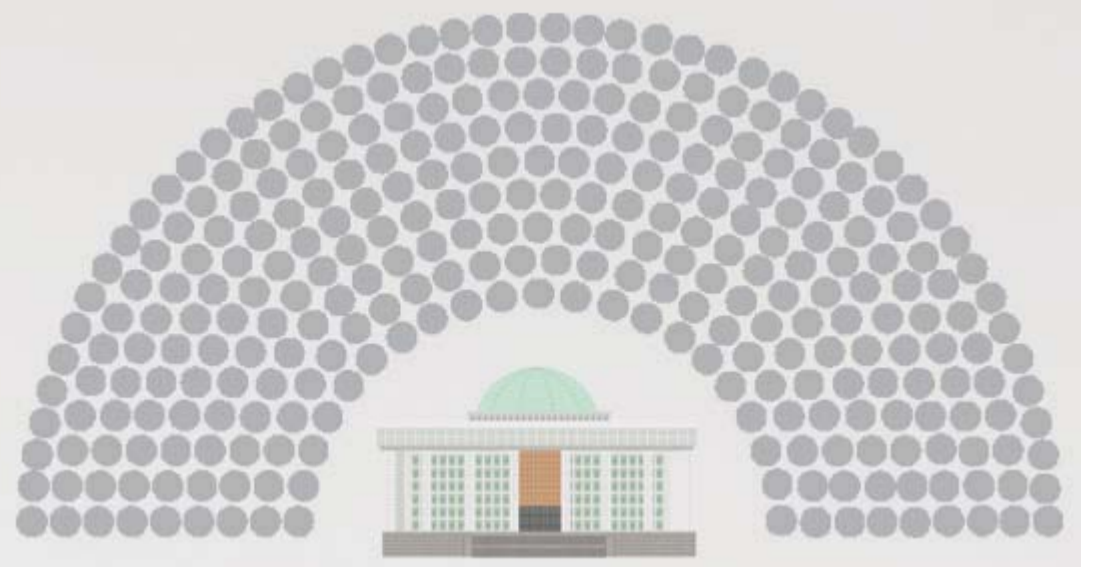
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 하든챔피언인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SDGs)’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국내 구축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제도 운영 ▲전략적인 기술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발생원인으로 ‘R&D 인프라 부족’이 2위로 지목된 만큼, 기술·인재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협력거점이 필수”라며 “IMEC,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가진 자생적 연구 집적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현역 재도전 비율 30% 초과 지역구 반 이상 '아는 얼굴'



22대 총선 공천결과 분석

데이터 기반에도 혁신 지지부진
평균 50대 후반... 최고령 국회 전망
여성·청년 비율 20%도 못 미쳐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한다고 하나. 이 표현은 예의가 없는 용어다. 언론에서도 자중해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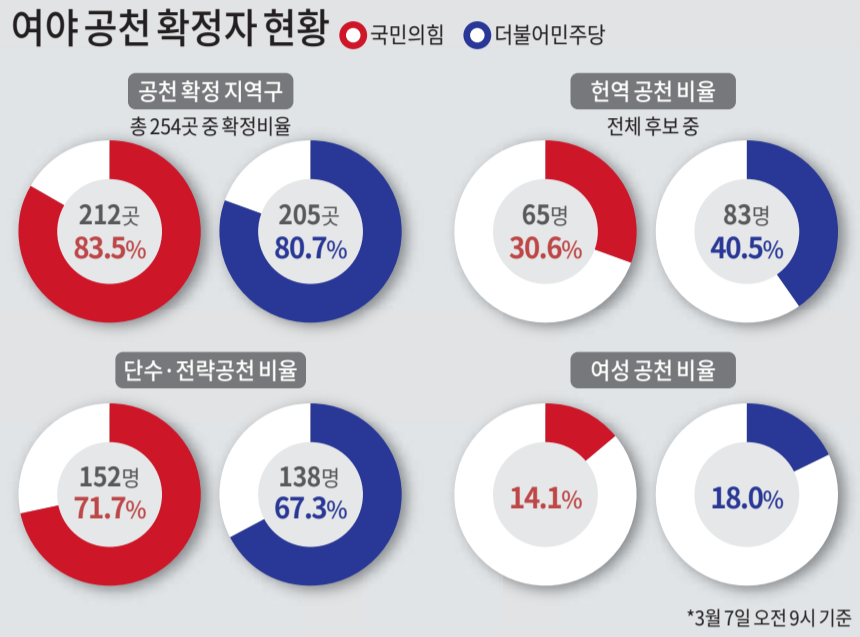
해당 발언은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주 쓰이는 ‘물갈이’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물갈이’라는 용어는 선거철이나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왔다.

이해찬 전 대표의 지적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철에 다시 한 번 ‘물갈이’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들 중, ‘다 아는 얼굴’은 얼마나 될까.

◆ 여야 공천 막바지

7일 <메트로경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명단(7일 오전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공천 확정된 현역의원이 본선에 재도전하는 비율은 전체 후보의 30%를 넘었다. 지역구 현역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이 ‘다 아는 얼굴’들인 셈이다.

먼저,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여당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4개 선거구 중 212곳에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은 단수·전략공천이나 경선을 거친 이들이다.



이중 현역의원은 65명으로, 전체 후보(212명) 중 30.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91명(민주당 출신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53개(울산 북구는 무공천) 선거구 중 205곳을 확정했다. 이 중 현역의원은 83명으로, 전체 후보의 40.5%다.

또 민주당 지역구 현역의원(141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58.8%다. 국민의힘보다는 물갈이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역교체가 비명계(비이재명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선택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다.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체 후보의 14.1%, 민주당은 전체 후보의 18.0%였다. 양쪽 모두 경선 중이거나 미확정된 선거구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 후보가 나오더라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20년 선거 당시 18.5%였다.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 역시 50대 후반이었다. 국민의힘은 58.2세, 민주당은 56.4세였다. 이는 역대 2위의 고령 국회였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인 54.9세보다 높다. 지역에서 2030세대 청년이 후보로 확정된 경우는 양당 모두 합쳐 10명을 겨우 넘는다.

◆ 단수·전략공천 절반 이상... 21대 총선 교체율은?

양당의 단수·전략공천 비중도 눈에

된다. 통상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경쟁력 등을 평가해 단수공천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전략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히든카드’로 내는 만큼, 지역 내 민심과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수·전략공천을 줄이기 위해 경선이 필요없는 곳도 ‘기계적으로’ 경선을 붙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구 60% 단수·전략공천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 반발도 현역의원 교체율 30%대 전망

22대 총선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양당은 200여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60%가 넘는 후보를 단수·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12명의 후보자 중 152명(71.7%)이 단수·우선추천(단수·전략공천)을 받은 이들이었다. 민주당은 후보자 205명 중 138명(67.3%)이 단수·전략공천을 받았다. 양당 공관위의 선

택이 옳았는지는 선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의 단수·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비해 22대 총선은 후보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 중 현역 재출마가 65명에 달했고, 불출마·경선포기·컷오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26명(28.5%)였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 협지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7명을 포함하면 현역교체 비율은 29.6%가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율이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불출마 선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면서 “이번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141명 가운데 83명이 22대 총선에 재도전한다. 불출마 선언, 컷오프, 경선탈락 등으로 교체된 이들은 52명(36.8%)이다. 아직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된다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비명계(비이재명계) 위주로 교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총선에는 비례를 포함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민주당 28%의 현역의원이 교체됐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교체율이 낮고, 국민의힘은 높아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고졸 행원서 국제통까지... 고객중심·디지털금융 '성공신화'

CEO 리서치

진 옥 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한 회사와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뜻하는 CEO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고경영자는 하루에 수많은 현안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의무도 있다. 메트로신문이 기업은 물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CEO를 집중탐구하는 코너를 만들었다. <편집자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고졸 출신 은행원에서 회장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立志傳的)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표적인 외유내강형이다. 겉손이 몸에 배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웃는 모습은 카리스마보다 편한 리더 처럼 보인다. 회장으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를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조용히 전진하는 스타일이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솔선수범한다.

◆ 정통 신한맨, 일본서 18년 근무

진옥동 회장은 1961년생으로 올해만 63세다. 덕수상고 3학년때인 1980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그는 1986년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은행과 학업을 병행해 1993년에는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에는 중앙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직원들과 격없는 소통·솔선수범 재무적 성과 넘어 고객 인정 중시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아껴요 데이'로 ESG 경영 실천

진 회장은 특히 행원 생활 중 절반가량을 일본에서 보낸 일본통이다.

1997년 일본 오사카지점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한 그는 2009년 신한은행의 일본 해외법인 SBJ은행이 출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2011년 일본 SH캐피탈 사장을 역임한 뒤 SBJ은행 부사장을 거쳐 2015년 SBJ은행 법인장에 올랐다. 법인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확대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일교포 주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2017년 한국에 돌아온 진 회장은 신한은행 부회장(경영지원그룹장)과 신한금융 부사장(COO)을 역임한 뒤 2019년부터 신한은행을 4년간 이끌고, 2023년 신한금융 회장에 올랐다. 조용병 회장의 용퇴로 기회를 얻었고, 회장 자리를 단숨에 꿰찼다. 조 회장의 연임을 예상했던 신한금융 내부에서도 놀랄 만한 사건으로 꼽힌다.

◆ 챗GPT에 물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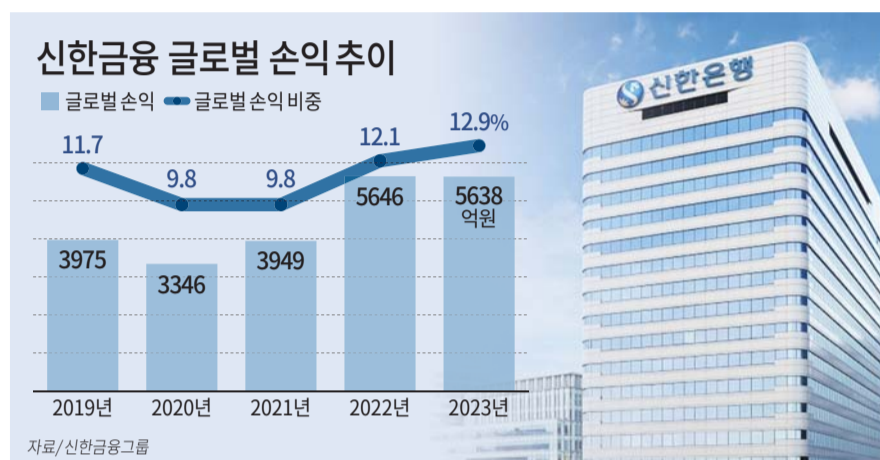
인공지능 챗GPT에 진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내부 평가에 대해 물었다.

진 회장은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경영 방향성을 '고객 중심'과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하며, 조직의 내실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ESG 경영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나타나고



진옥동 회장(가운데)이 지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해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신한 디지털 RE100' 선언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매달 21일을 '아껴요 데이'로 지정해 에너지 절약 및 사회 환원 활동을 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회사 CEO 평가에 내부통제 부문을 추가하고, 내부통제협의회와 윤리준법실무자협의회체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한금융그룹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과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플랫폼개발 혁신 추진 앞장 계열사 서비스 결합 '슈퍼솔' 선포 상품개발 그룹데이터 플랫폼 마련 AI·클라우드 등 융복합 기술 구상

진 회장의 장단점에 대해 물었다. 챗GPT는 그의 경영 스타일과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장점과 추론 가능한 단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조는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슈퍼SOL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취임 1년 '디지털 전환' 매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장으로 취임한 진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금융을 접한 소비자들이 대면 서비스보다, 더 쉽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을 선호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진 회장은 지난해 은행·카드·증권 등 주요 계열사 서비스를 결합한 슈퍼앱 '신한슈퍼솔(SOL)'을 출시했다.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이체나 결제, 주식거래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1월말 기준 신한 슈퍼솔 가입자는 300만명을 돌파하고, 월 사용자수(MAU)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전달과 비교해 50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앱에 가입만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3분의 2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보호도 강화했다. 소비자의 가치가 전문성·도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성장하기 위해선 소비자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진 회장은 그룹소비자보호부문(CCPO)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부문은 그룹차원의 소비자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은행·카드·투자증권 등 15개 계열사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최고경영자(CEO) 평가항목에 내부통제도 추가했다.

◆ 일본통 넘어 '국제통'으로

앞으로 진 회장의 과제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보이지 않는 금융(Invisible Bank)'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나 은행 앱을 방문해야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집에서 TV와 인공지능(AI) 스피커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느 곳에서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신한금융은 AI서비스르고도하기 위해 AI 콘택트 센터(Contact Center)를 마련해 각 계열사의 AI 고객상담 모델을 통합했다. 고객데이터를 통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룹데이터 플랫폼 '신한 원 데이터(Oen Data)'도 마련했다.

진 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국내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 참관했다. AI와 가상현실(VR),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신한금융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도 또 하나의 과제다. 앞서 진 회장은 2030년까지 글로벌 손익비중을 3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의 글로벌 손익비중은 12.9%로 전년



지난해 출시한 신한 슈퍼솔(SOL). 신한금융그룹

대비 0.8%포인트(p) 늘었다.

진 회장은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투자설명회에서 "빌드업(천천히 쌓아가는 것)은 성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고, 인수합병(M&A)은 신속성이 장점"이라며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마켓을 성장시키고 이익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진옥동 회장 프로필

- 1961년 출생
- 1981년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199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6년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80년 기업은행 입행
- 1986년 신한은행 입행
- 1987년 인력개발실 행정원
- 1996년 명동지점 대리
- 1997년 오사카지점 대리
- 2001년 오사카지점 차장
- 2002년 여신심사부 부부장 겸 심사역
- 2004년 자금부 팀장
- 2008년 오사카지점장
- 2009년 SBJ은행 오사카지점장
- 2011년 SH캐피탈 사장
- 2014년 SBJ은행 부사장
- 2015년 SBJ은행 법인장
- 2017년 신한은행 부회장(경영지원그룹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2019년 신한은행장
- 2023년 신한금융그룹 회장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여론 상승세, 아직 부족” vs “대립각, 별로 개의치 않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2대 총선 격전지

인천 계양을

‘작전서운동’ 포함 확정안 제안에 국민의힘 “진보 지지세 높아 불리” 원희룡, 대립각·선명성 총력 집중 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현장 방문 당 대표 업무 중에도 구민들과 만남

‘명룡대전’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칭이다.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천 계양을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양갑이 인구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가져오는 확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생겼다.

확정안 처리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된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작전서운동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왼쪽)가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은 52.33%였고, 계산1·3동에선 50.79%였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50.32%를 득표했고, 계산1·3동에선 50.79%를 득표해 오히려 계산1·3동이 소폭 더 지지를 얻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 후보를 7.21% 격차로 이겼음에도 계양구는 50.37%가 넘는 지지를 박 후보에게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세가 강한 선거구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유명하며 최근 5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내준 적이 단 한번 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에 스며드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에서 협지 중

에 협지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를 꿈꾼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잡으면 단숨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아직 연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계양을에 스며드는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지역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오전 찾은 사무실에서 원 전 장관은 지역 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원 전 장관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대해 최대한 객



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흐름은 나타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인천 시민 오광용씨는 “인천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가 온 적이 별로 없다”며 “원 전 장관 같은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중양당 업무에도 지역 찾는 이재명 시골벽적인 원 전 장관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재명 국회의원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

다.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업무가 바빠지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뒤로 미뤘고 아직 선거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는 바쁜 당대표 업무 중에도 지역을 찾으면서 구민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 관계자는 “당 대표 업무가 너무 바빠서 지역에 상주하지는 못하신다”며 “그래도 어제도 작전서운동 주민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그 쪽에서는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본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의 등장

원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중간 쯤에 유동규 자유통합당 계양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유 예비후보의 출마가 실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둘 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은 유 예비후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이 대표 측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 전 장관 측은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이재명, SK하이닉스 방문·정책간담회 동부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 확대와 시스템 반도체·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

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패키징 육성,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랩(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민생토론회, 선거용 아냐 925兆 퍼주기? 사실 왜곡”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지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민주당 탈당파 “민주연대 결성 추진”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

尹·李 방탄청산에 힘 모을 것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이 “진짜 민주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 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겠다”면서 “진짜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연대’의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할지 아니면 ‘민주’가 들어가는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것인지 속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긴 그렇다. 이번주 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는 형식이나 물음엔 “지금 형태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미래에 적을 두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왕[👑]돈까스버거

버거의 선을 넘었다



돈까스 소스
추가증정
소스 추가구매 ₩300

단품 ₩7,500
콤보 ₩8,700
세트 ₩9,400

매운왕돈까스버거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본 행기는 보험사, '뇌·심장·암' 3대질병 보장 강화

교보생명, '뇌·심장' 라인업 강화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상품 준비

흥국생명·화재, 장수시대 맞춰
시니어층 타겟 가입 문턱 낮춰

보험사들이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뇌, 심장, 암' 질병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가입 연령의 폭을 넓히는 등 근본적인 건강보장에 힘쓰는 모양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뇌·심장 질환은 암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질병으로 꼽힐 만큼 발생 빈도가 높아 적극적인 대비를 요구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뇌·심장질환 진단부터 수술, 치료, 입·통원, 장애간병 지원까지 보장하는 '교보뇌·심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뇌·심장질환 특화보장보험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치료 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을 1월 '교보통큰암보험'을 출시한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후 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한국인의 2대 질병인 뇌·심장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며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이 가능하고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80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인 '다(多)사람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지난 26일 출시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80세까지 보장하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80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암 진단 및 소액암 담보를 기본형과 체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체증형은 80세 만기 상품을 보유한 기가입자

용으로 기존 암보험 상품 가입자의 보장공백을 대비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50대 이상 암보험 가입자의 90%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80세 체증형은 기존 암보험 상품의 보장 공백을 빈틈없이 매워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중 흥국화재 역시 장수시대에 맞춰 90세도 가입하는 '무배당 흥 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을 지난 19일 출시했다.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해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장수시대에 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하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도 늘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60~90세대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이창용 한은 총재 BIS총회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은총재(사진)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제총재회의,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한 논의도 주도할 예정이다.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도 참석한다.

/나우리 기자 yul115@

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 위해 본질 흐려

가입기준 중위소득 250%로 상향
혜택 청년 늘리는 데에 주안점 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당초 기획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대상 확대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당초 청년도약계좌가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억 5400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하며 비교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의 기여금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표치인 306만명의 17%인 51만명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희

망적금 연계 가입 및 일괄 납입 허용, 비교세 혜택 확대, 중도 해지 시에도 금리·지원금 보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아직 더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143만 6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약 41만명에 그쳤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1~3월에 몰린 것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는 추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미진한 것은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가입 기간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이 월 40만~70만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도 5년에 달한다.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에게는

가입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평균 수준인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최대한으로 적용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인 월 40만원 이상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평균 아래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이번 기준 완화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호텔식 출입구로 디자인한 드롭오프존의 모습.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 iF 디자인 어워드 2개부문 본상 수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4'의 건축과 인테리어 등 2개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커뮤니티(The Brillia)와 지하공간(High-End One Park) 등 2개 작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건축부문에서 수상한 래미안원베일리의 지하 공간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용이한 호텔식 출입구, 예술 작품을 품은 지하 공공 보행로 등을 통해 입주주인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인테리어 부문에서 수상한 커뮤니티는 '그랜드 투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디자인 된 수영장사우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만족과 래미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대구銀, 프론트윈 찾아 핀테크 협업 논의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협력 모색
금융의 한계 벗어난 플랫폼 목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지원 강화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프론트윈을 방문해 핀테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프론트윈'은 디캠프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다. 이번 방문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 모색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황병우 은행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프론트윈을 방문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핀테크 기업 지원 기관과 미팅을 진행한 후, 입주기업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은행은 최근 MOU 체결, 전략적 지분투자, 제휴 서비스 출시 등 다방면으로 핀테크 연계를 늘리고 있다. DGB 금융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피움랩(FIUM Lab)을 통한 실무 협업도 진행 중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오른쪽 세번째)이 프론트윈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은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금융의 한계를 벗어난 플랫폼을 목표로 시중은행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핀테크 상생은행으로서 면모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들이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내연·전기차 장점만 ‘쏙’... 하이브리드 성장세 두드러져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 대거 포진
국내외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연비 등 메리트... 인기 이어질 것”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예상롭지 않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친환경차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이 총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세가 줄어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베스트셀링 모델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차량들이다. 1위는 기아 쏠렌토(8671대)가 차지했으며 카니발(7989대), 쏘렌토(7413대), 스포티지(6991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도



더 뉴 쏠렌토 하이브리드



기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현대차

쏘렌토,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인 기아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쏠렌토와 쏘렌토, 카니발 등의 전체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6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스타리아 하이브

리드를 출시했다. 또 내년 출시되는 신형 팰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중·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2.5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체기를 겪고 있는 수입차 시장도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1만6237대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 역시 1년 전보다 22.5% 줄어든 2만9320대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구매자들의 소비심리가 닫히면서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5%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토요타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919대를 판매하며 전체 4위를 기록했다. 토요타 역시 736대로 7위를 기록했다. 두 브랜드 합산 판매량은 1655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8876대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토요타가 이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물론 과거 반일 정서가 높아 판매량이 급감했음에도 꾸준히 최상의 서비스에 집중한 영향도 있다.

토요타는 올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토요타 캠리, 렉서스 LM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총전 인프라 등의 문제로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하면서 뛰어난 연비와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어 당분간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가스터빈 사업 현황 점검

“갑진년, ‘K-가스터빈’ 수주확대 원년”

박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창원 방문
5년간 국내서 7조 이상 수주 목표

“K-가스터빈 개발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이 7일 경남 창원에 있는 가스·수소터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가스터빈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회장, 파워서비스BG 손승우 부사장을 비롯해 (주)두산 CSO 김도원 사장, CFO 김민철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이날 현장에서 본격적인 가스터빈 수주 확대를 앞두고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인 수소터빈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해 20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첫 공급한 가스터빈이 지난해 7월 상업운전에 성공하며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보령신복합발전소, 2024년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따내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오른쪽)이 초대형 가스터빈 정격부하(FSFL, Full Speed Full Load) 성능시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가스터빈 원천기술을 활용한 수소터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고효율 H급(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로 제작한 고효율 터빈) 수소터빈의 수소 혼소 50% 기술을 개발중이며, 개발된 기술은 한국동서발전의 울산복합발전소에서 실증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400MW급 초

대형 수소 전소 터빈을 2027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H급 수소터빈은 기존 수소터빈(E급) 대비 연간 약 460억원의 연료비 절감과 연간 약 5만톤 추가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은 “올해는 340여 개 국내 산학연이 함께 이루어낸 K-가스터빈의 수주를 본격 확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가스터빈 개발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과 기술력으로 고효율 무탄소발전 기술로 부상하는 수소터빈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케미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

CJ제일제당 업무협약 체결
올해 말까지 1.2만t 생산 계획

HD현대케미칼과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납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생산에 나선다.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과 ‘친환경 바이오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HD현대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400톤을 초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만2000톤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대두유,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HD현대케미칼은 공급받은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납사를 만들고,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다시 CJ제일제당에 공급한다. 공급한 친환경 플라스틱은 CJ제일제당



오 원료·플라스틱 선순환 비즈니스 (왼쪽부터)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가 7일 친환경 바이오 원료, 플라스틱 선순환 비즈니스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간편 가정식 용기와 포장재 등에 활용된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 SCC 인증을 받았다”라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사와 달리 바이오 납사 생산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과정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중공업, 특수선 해외 기술거점 구축

마닐라에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을 거점 삼아 2030년 10억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합정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하고 K-방산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7일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진행된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식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와 국방부 호셀리도라모스 국방획득차관보, 시저 발렌시아 필리핀 해군 부사령관, 요셉 코미 필리핀 해경 해양안전사령관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합정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기술 거점 구축에 나선 까닭

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증대되는 방산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 ▲MRO ▲영업 담당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사양과 인도된 합정의 기술지원 및 보증수리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공략을 통해 2030년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 도입

이달 중 EV 인증 중고차 판매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EV)를 마치 전자 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현대차·제네시스 EV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차량 매각대금 외 별도 보상금(매각대금의 최대 2%)과 신형 EV 가격 5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보상판매를 통해 현대차 신형 EV를 구입할 때도 매각대금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양성운 기자

“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DMA 위반시 최대 20% 과징금

〈디지털시장법〉

유럽연합, 'DSA 패키지' 완성
디지털시장법, 27개 회원국 시행
메타·애플 등 게이트키퍼 6곳 지정
준수 여부 평가보고서 조사 예정



EU가 지난해 8월 DSA법을 시행한 데 이어 7일(현지시간)부터 DMA법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곳의 빅테크 기업은 DMA법 기준 준수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Pixabay

유럽연합의 'DSA 패키지'가 완성됐다. DSA 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두가지로 이루어진 빅테크 규제 법률이다. 기술패권 시대 많은 나라가 거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선회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EU의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DSA 패키지 완성이 향후 빅테크 기업과 각국의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 패키지' 중 하나다. DSA 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케팅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띄우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 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백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기준이 되고 각국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 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벅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상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질수록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TV 등 B2B 특화 제품 온라인 '사업자물' 열어

LG전자가 7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브랜드샵 '사업자물'을 열었다.

사업자물에서는 TV, PC, 모니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등 B2B(기업 간 거래) 특화 제품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모델을 판매한다. 배송·설치까지 지원한다.

LG전자는 연내 ▲요식업·카페 ▲기업 ▲문화·공공 ▲교육 ▲주거·숙박 ▲병원 등 업종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 전용 가전구독 서비스도 연다. 별도의 전문 설치 공사가 필요한 B2B 제품도 판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자물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사업자물'을 누른 뒤 사업자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아우디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

'아우디 RS 6 아반트 GT' 660대 한정 모델 출시

아우디 AG가 7일 RS 6 아반트 라인업 최상급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를 공개했다. 전 세계 660대 한정 모델로 오는 2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최고 성능 라인업인 RS 중 6 아반트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V자 형태 트윈터보 차저 8기통 엔진을 탑재해 2300~4500rpm에서 출력 630마력, 토크 850Nm을 발휘한다. 기본 모델(RS 6 아반트) 대비 출력은 30마력, 토크는 50Nm 각각 증가했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3초로 기존 대비 0.3초 줄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5km다.

4.0 TFSI의 출력은 최적화된 변속 시간을 갖춘 표준 8단 팁트로닉 기어박스를 통해 상시 전륜 구동 콰트로에 전달된다. 연비는 복합(WLTP) 기준 12.2~12.7L/100km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최신형 로킹 센터 디퍼렌셜을 적용해 주행 역학을 개선하고 코너링 정확성을 향상했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RS 6 GTO 콘셉트 카를 기반으로 디자인됐다.

/양성운 기자 ysw@

“그룹 내 사업역량 결집… 시너지창출로 미래 대비”

구자은 LS그룹 회장, 인터배터리 찾아
전기차 소재·충전 등 EV 생태계 정진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년 연속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를 찾아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6일 전시장에 방문해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경험하고 참여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전시관을 둘러본 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구자은 LS 회장이 지난 6일 LS이모빌리티 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그룹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S는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 솔루션, LS이비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6개 회사가 △Material △EV △ESS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 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SMnM은 이번 전시회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LS이모빌리티 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 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 C&C, 디지털 보험 先 심사 시스템 구현

질병·상해·간병 등 경쟁력 확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지원

SK C&C는 흥국생명에 보험 디지털 선(先)심사와 설계사 맞춤형 영업자동화(SFA)를 구현한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보험 경쟁 환경에 대응하고 질병과 상해, 간병보험 등 새롭게 성장하는 제3보험 시장에서의 디지털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SK C&C는 먼저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심사 선심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결과를 제공해 고객들의 보험 가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설계사들이 고객 사전 고지와 확인된 병력 정보로 고객의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청약 전에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SK가스,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 출시

LPG 충전소 이용 편의 증대

SK가스가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1톤트럭 차주들의 친환경 LPG 1톤트럭 전환 및 LPG 충전소 이용 편의 증대에 나선다.

SK가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LPG업계 최초로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SK가스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와 신형 LPG 1톤트럭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0월 선제적으로 '택배업계 친환경 LPG 1톤트럭 물류 생태계 구축'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친환경 LPG 1톤트럭의 확산 및 택배 사용자들의 편리한 운행·충전 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상생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증권사, 이달 내 '세대교체' 마무리... 실적따라 희비 갈려

10개 증권사 중 7곳서 칼바람 SK, 메리츠·키움증권 등 교체 새 수장으로 리스크관리 역량 집중 대신, 교보증권 등 호실적에 재연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증권가 최고경영자(CEO) '세대교체' 바람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이 수장을 교체한 반면, 호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들은 연임을 확정하기도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10대 증권사 중 7개사 CEO들이 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증권가 내 세대교체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외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업계가 부진했던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장수 CEO들의 용퇴가 대거 결정되면서 증권가 새물결이 더욱 체감되고 있다.

최근 SK증권은 11년간 자리를 지켜온 김신 대표가 물러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전우종 각자 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각자 대표 체제를 꾸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증권가에서 손꼽히는 최장수 CEO였다. 당초 세대교체의 포문은 지난해 말 창업

〈주요 증권사 CEO 교체 현황〉

증권사	기존 대표	신임 대표	연임 여부
미래에셋	최현만	김미섭·허선호	X
NH투자	정영채	미정	X
삼성	장석훈	박종문	X
KB	김성현·박정림	김성현·이흥구	X
메리츠	최희문	장원재	X
신한	김상태	김상태	O
키움	황현순	엄주성	X
대신	오익근	오익근(미확정)	사실상 O
교보	박봉권	박봉권	사실상 O
하이투자	홍원식	미정	미정
SK	김신·전우종	전우종·정준호	X
한양	임재택	임재택(미확정)	사실상 O

멤버였던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사가 떠나면서다. 이후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이 모두 수장을 교체했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증권사들이 새 수장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국내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인한 총담금 부담이 컸던 만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악재를 만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다양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변화되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호실적으로 증명... 대신, 한양, 교보 등 연임 성공

반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CEO들도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등은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현재 대신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

자 허가를 받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 요건을 맞추고자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종투사를 넘어 초대형 IB까지 노리고 있다. 종투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조원의 우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넘겨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종투사 진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연임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초대형 IB까지 노린다면 비슷한 경영 전략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연말 기준 2조8532억원으로 종투사 기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며, 상반기 내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실적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156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8.7% 늘어나 선방했다.

교보증권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76억원, 영업이익의 703억원, 매출액 3조7430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1%, 36.1%, 7.9%씩 성장한 수치다.

한양증권 역시 지난해 기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비율이 0%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25% 증가한 351억원을 달성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실적 먹구름에 연임도 '글썸'

아직 CEO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증권사 중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하이투자증권은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비율이 7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 85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도 31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실적 부진은 부동산 총담금 설정 비중이 가장 큰데서 비롯된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깎기' 논란과 관련해 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연임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깎기'란 대출을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은어를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분위기가 내부통제에 민감하고, 실적과 관련해 CEO 교체가 일어나는 기조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투자자 보호·주주권 강화로 신뢰 제고”

이순호 예탁원 사장 기자간담회 주주총회 전 과정 디지털화 추진 종합 투자지원 플랫폼 발전 계획



시 20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탁원은 상반기에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모니터링 화면 등 부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이 사장은 "법 개정 사항에 발맞춰 주어진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어떤 형태로든 파일럿 시스템으로라도 시범 삼아 체계를 운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제통합계좌 시스템을 올 6월에 가동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이용해 손쉽게 한국 국채를 관리할 수

있다. 앞서 예탁원은 작년 하반기 세계 최대 규모 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 스트림과 잇따라 국제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는 5월 28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가 거래 체결일(T)+2일에서 거래 체결일(T)+1일로 단축됨에 따라 담당 직원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1시간 안에 약 7만 건의 결제 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는 예탁원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 사장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금융시장 지원 선도'라는 목표 아래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조직·기 업문화를 재구축해 시장성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융투자협회-SSC,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 '맞손'

금융투자협회는 서울에서 베트남증권위원회(SSC)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과 양국 자본시장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베트남 투자촉진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서울에 온 베트남 재무부 호득푹(Ho Duc Phoc)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양국 대사관과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왼쪽부터)호득푹 베트남 재무부 장관,부티짚평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 캐나다ETF 자회사 사명 변경

호라이즌스 ETFs → 글로벌엑스 캐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5월부터 캐나다상장지수펀드(ETF) 자회사 '호라이즌스(Horizons) ETFs' 사명을 '글로벌엑스 캐나다(Global X Canada)'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글로벌 ETF 시장에서 '글로벌엑스'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해외 비즈니스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 진출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해외법인의 ETF 브랜드를 '글로벌엑스'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라이즌스 ETFs'는 2011년 미래에

셋자산운용이 인수한 캐나다 4위 ETF 운용사다. 인수 당시 30억 캐나다달러(22억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현재 약 9배 성장했다. 2월 말 기준 320억 캐나다달러(233억달러)로 한화 약 31조원이다. 상품 수도 70개에서 119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운용자산은 76억 캐나다달러 증가하며 300억 캐나다달러를 돌파했다.

'호라이즌스 ETFs'는 '글로벌엑스 캐나다'로서 캐나다 현지 투자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에 이은 글로벌 주요 ETF 시장인 캐나다 시장을 선도해 온 만큼, 글로벌엑스 캐나다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美반도체MV’ ETF, 올 개인순매수 516억

삼성자산운용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중 최대규모

삼성자산운용은 7일 'KODEX 미국 반도체MV'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가 516억 원으로 국내 상장 반

도체 ETF 32개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연초 이후 44영업일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에 순자산도 2276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미국반도체MV는 엔비디아 투자비중이 26.8%로 국내 상장 반도체 ETF중 가장 높다. 최근 1년 수익률이 89.7%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MV반도체 지수'는 KODEX 미국반도체MV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로 약 171억달러(약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최대 반도체 ETF인 SMH(반도체 반도체 ETF)의 기초지수다. /원관희 기자

자원개발·친환경 분야 개척... 상사업계, 수익원 확보 총력

삼성물산 美·호주서 태양광 사업 작년 미국서 5800만 弗 매각 이익
포스코인터 작년 영업이익 28.9% ↑ 8년간 에너지강제 223만t 판매 목표
SK네트웍스 AI전문 투자회사 전환 영업의 규모 현재의 3배 수준 목표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삼성물산

국내 상사업계가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세계 각지에 구축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사업계가 전반적인 매출 감소세 속에서도 대부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현대코퍼레이션 등 5대 상사의 작년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4조6175억원 대비 6.4% 늘어난

4조9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에는 상사업계들의 신사업 부문의 투자를 통한 수익 개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영역인 트레이딩 부문에서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

를 극복하고, 자원개발과 친환경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미국, 호주 등에서 태양광 개발 사업을 확장한다. 선진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고 관련 제도가 안정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사는 초기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다.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 연결 조사를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발전소 착공 이전까지 사업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 '태양광 사업권'이라는 일종의 무형 자산을 수익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미국에서 2200만달러의 매각 이익을 거뒀고, 지난해엔 5800만달러의 태양광 사업개발 매각이익을 거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1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 합병을 통해 에너지 밸류체인을 확장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친환경 소재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에너지강제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 223만톤의 판매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친환경 특화 강재인 '그리넷'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의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해상탄소저장소 개발, 배터리·부품·모터·차체 등의 사업 확장에 나선다.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는 2030년 연 35만톤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상사였던 SK네트웍스는 지난 2월 기업설명회를 통해 3년 이내 완전한 인공지능(AI) 전문 투자회사로 탈바꿈하고 영업이익의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I 분야에 직접 투자함과 동시에 자회사의 AI 역량도 끌어올려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회사는 2026년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에 이르는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 선포했다.

상사업계 관계자는 "대의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상사업계는 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 제약사, 美서 항암치료제 경쟁력 알린다

내달 5일~10일 'AACR 2024' GC셀 '이문셀엘씨주' 데이터 발표 유한양행,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공개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미국 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4)'에 나선다.

미국암학회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 업계는 항암 치료제 영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헬스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규 항암제의 지속적인 도입, 장기 치료에 의학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4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씨셀(GC셀)은 이번 AACR 2024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205/GCC2005'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문셀엘씨주'의 실사용데이터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을 제외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악성 종양이다.

지씨셀의 'GL205/GCC2005'는 악성 T세포 림프종 종양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겟으로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동종 제대혈 유래 NK세포에 장착한 신규 모델이다. 대부분의 T세포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겟으로 해 넓은 환자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씨셀은 기존 승인된 표적치료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이문셀엘씨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 실사용데이터 분석결과도 공유한다.

실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환자군 및 다양한 병용 요법들을 분석해 추후 이문셀엘씨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YH32367과 YH4172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YH32367은 유한양행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다수의 HER2 발현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으로 시험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H41723의 경우 이번 학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PD-L1, TIGIT 이중 타겟 면역항암제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코프로비엠-SK온-포드합작캐나다퀘벡공장가상도. /양성문 기자 ysw@

현대무백스, 캐나다서 물류시스템 수주

200억 규모 에코프로비엠 공장 이달부터 시행, 2026년 완료 계획

현대무백스가 에코프로비엠 캐나다 퀘벡 공장의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올해 2차전지 신사업 성과의 첫 포문을 열었다.

7일 현대무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에코프로비엠과 약 200억 원 규모 통합 물류자동화 공급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첨단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은 SK온, 포드와 합작해 캐나다 퀘벡에 초대형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 후 연간

4만 5000톤(전기차 54만대분)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무백스는 이 공장에 자동창고시스템(AS/RS)을 비롯해 양극재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물류 설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무백스 기술로 개발한 SRM(2세대 스테커크레인), AGV(무인이송로봇), 고속수직반송기 등의 첨단 장비와 함께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WMS 등 고도화된 물류IT 설루션까지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GV는 전(全) 방향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델로, 양극재 공정에 20대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문 기자 ysw@

K-스타트업 지원 재외공관 7곳 선정

중기부, 튀니지·샌프란시스코 등 현지 투자상담회 등 프로그램 지원

정부가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선정을 끝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사업 시행 공관은 ▲튀니지(대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사우디(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호치민(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베트남(대사관) 등 7곳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번에 선정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인프라를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에선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공관별 최대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외교부는 범부처 차원의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가스보일러 제품 4종 '재난 안전 기술' 인증

귀뚜라미보일러가 업계 최초로 2025년 '재난 안전 기술'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았다.

귀뚜라미는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의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이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거꾸로 ECO 콘덴싱 L11 ▲트윈알파 ECOL10 등 가스보일러 4종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경력단절여성 창업 육성 나선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총실현 이행을 위해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우선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으며, 여학생 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과일·채소 체감물가 낮추기 총력 “최대 40% 할인행사 지속 추진”

송미령 장관, 농산물·농식품 간담회
3~4월 204억 투입 납품단가 인하
할인지원 예산 230억으로 확대
韓 공급부족 품목 대체과일 도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최근 물가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등의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3~4월 중 204억 원을 투입하고,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농식품 소비자물가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과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기간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확대해, 최대 40%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체와도 연계해 자체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분산 차원에서 대체과일의 해외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의 경우, 농축산물유통공사(aT) 직수입을 추진해 저렴한 값의 시장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과일이 수확되기 전까지 비정형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를 중심으로 적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이른바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햇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장비 및 약제 등 생육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함께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차관 중심으로 비상수급 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품목별 수급 및 소비자가격 동향과어제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품목별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농산물 수급상황과 관련해 이달 이후 일조량 등이 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사과와 배의 경우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수입산 확대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을 인용해 이 같은 전망을 냈다. 3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급동향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전년비 사과 30.3%, 배 26.8%) 및 비정형과 증가, 감귤은 대체 수요 증가와 함께 2월 중순 이후 출하 종료로 소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및 유통업체와 협업체 2024년 수확기 전까지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및 대체과일(국산, 수입) 공급 확대 등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2024년산 주요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약제 지원, 과수 화상병 예방 제거 등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설채소는 2월 잦은 강우로 주산지의 일조시간이 40% 이상 감소해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충청권에서 애호박·오이·토마토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주요 시설채소의 대형마트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작황 회복을 위해 농협·농진청과 함께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00명대 첫 감소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효과 주목

작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의 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인지 주목된다.

7일 고용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 잠정치)이다.

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 감소한 수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하락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021년 683명에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업종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건설업(303명, -11.1%), 제조업(170명, -0.6%), 기타업종(125명, -5.3%) 순으로 건설업 산재 사망자 비율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사업장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354명(-8.8%), 50인(억) 이상은 244명(-4.7%)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 비율 감소가 컸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44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7%) 감소했다. 중대재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 시행 첫 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확대된 셈이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전년보다 9건(3.9%)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산재 사망자 수 감소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뚜레쥬르 등 ‘가루쌀 개발’ 지원 30곳 선정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3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이 중 총 30개 업체를 선정했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심과 삼양식품, 농협경제지주, 파

리마켓, 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와플대학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1월 15일~2월 16일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176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해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제재 유예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 규제제의
“자율적 포장재 줄이기 적극 유도”

택배 등의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시행(올해 4월 30일)을 앞두고,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됐고, 다음 달 말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잠정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

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체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

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합리적인 사안일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화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16개 소분야 KS·ISO 대응 전문성 강화

환경부, 교통·물환경 분야 지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개 전 분야에 대한 협력기관 지정은 완료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왔다. 16개는 유량을 비롯해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 상하수도서비스, 고품연료제품,

제품환경성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 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 참가관(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PREMIUM GOLF STUDIO

보면 볼수록 핸디가 내려가는 영상?

검색하세요
주노골프 



김준호 프로 ■ 유튜브: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juno_kim_44](#) ■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올해 수도권 대학 입시, 어떤 변화 생겼나

지역균형·논술전형 늘고, 학생부종합서 수시 '최다선발'

지균전형에 평택대, 한신대 추가
한양대, 학생 일반전형 3개로 늘려
숙명여대,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신설
논술고사 시행 대학 38개 → 41개
고려대, 7년 만에 논술전형 재도입

새 학기가 시작하며 고3 수험생 대입 준비가 본격화했다. 올해 입시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늘고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7년 만에 부활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전형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평택대, 한신대가 추가돼 지역균형전형 시행 대학이 총 49개가 됐으며, 이 중 서울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한신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 중 하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했다. 이와 달리 평택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PTU추천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형명칭을 기존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바꾼 한양대는 교과정성평가 1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전형방법에도 변화를 줬다.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

▲ 수도권 지역 선발규모가 가장 큰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먼저, 한양대가 한 가지로만 운영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던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을 3종류로 늘렸다. ▲학생부종합(추천형) ▲학생부종합(서류형) ▲학생부종합(면접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추천형과 면접형이 새로운 전형으로, 추천형은 기존 학생부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없이 서류100%로 선발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면접형은 사범대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20%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형과 다르다. 학생부종합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세 개의 전형 중 1개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소프트웨어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숙명디지털융합인재전형이 없어지면서 이름만 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과 달리 면접을 보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년간 자연계열 모집단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100%로만 선발해왔는데, 올해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 고려대, 7년 만에 논술전형 부활...

상명대·신한대도 신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41개로 늘어난다. 서경대가 논술전형을 폐지했지만, 고려대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추가됐다.

고려대는 7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상위권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었지만, 올해 다시 도입한다.

을지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다. 과거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현재 대부분 약술형 논술을 운영하는 만큼, 을지대도 약술형 논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신한대도 마찬가지이다. 상명대는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2025학년도에 논술전형을 신설하면서 약술형 논술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 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남시, 올해 545억 체납액 정리 목표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아울러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

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000여명(체납액 567억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대 정문.

서울대, 의대 입학정원 15명 증원 요청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회복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 '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

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2026년까지 1007개 정원 만든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매년 300여곳씩 조성 예정
시그니처, 펫가든 등도 마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정원 도시'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시내에 1007개의 정원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향후 3년간 시내 897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300여곳씩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생활, 도심 출퇴근, 휴일 나들이길 곳곳에서 매력가든을 접하게 한다는 목표다.

우선 25개 자치구는 도로, 광장, 교통점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매력정원을 마련한다. 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 도봉구-창동역 고가하부, 마포구-홍대 레드로드, 영등포구-문래동



서울대공원 매력가든. /서울시

공공공지 등이 그 대상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4곳에는 꽃정원이 생긴다. 올해 5월 마곡문화시설부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저층 주거지 일대 주택커브, 도로와 주택가가 만나는 작은 공간, 시장 근처 등 작은 자투리 공간에는 모여서 담소를 나

누는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음정원'이 들어선다. 연내 종로구 이화장 마을마당을 포함 9곳에 조성되고, 2026년까지 29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도심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279개소는 사계절 꽃길정원, 가로정원, 옥상정원, 서울아래숲길 등의 이름을 가진 매력정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식물원, 매한시민의 숲, 동작보라매공원, 강남울현공원, 마포월드컵공원을 비롯해 서울의 대표 공원에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그니처 가든이 만들어진다. 노을캠핑장과 난지한강공원에는 반려견과 뛰놀 수 있는 '펫 가든'이 마련된다.

노인종합복지관, 시립병원,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재활자립작업장,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는 어르신, 장애인, 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가든이 생긴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순도 줄기세포 대량 배양기술 개발... 재생치료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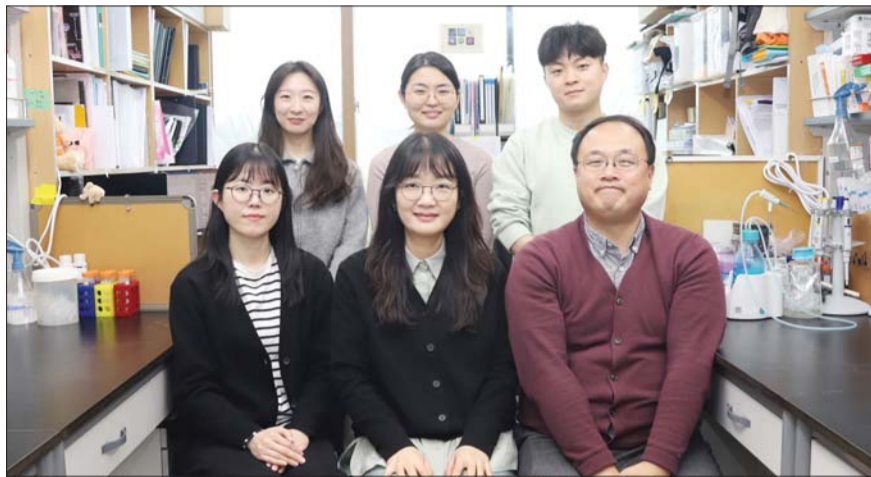
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박사팀 신약 개발 기초연구 등 활용 기대감 인체장기 모사, 동물실험 의존 낮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 게재

국내 연구진이 재생치료 등에서 수요가 높은 고순도의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 장(腸) 오가노이드에서 장 줄기세포를 농축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재생치료제 개발 및 다른 신약 개발 기초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인체 장기 유사체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체 장기를 모사할 수 있어 동물 대체실험이나 신약 개발, 재생치료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3차원 장 오가노이드는 대량 균질 배양이 어렵고, 동결보관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앞줄 가운데)와 권오만 박사(앞줄 오른쪽)가 연구팀과 함께 있다. 손 박사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인간 장(腸) 오가노이드에서 장 줄기세포를 농축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통한 장기 보관이 어려웠다. 또 장 오가노이드는 내부가 비어있는 내강(內腔)을 중심으로 상피 세포와 세포 외 기질이 둘러싸고 있는 둥근 공 형태인데, 장 상피 세포가 내부의 내강에 접근하기 어려워 다양한 응용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3차원 장 오가노이드에서 고순도의 인간 장 줄기세포 집합체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생산된 장 줄기세포 집합체가 마우스 동물모델의 손상된 장 상피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을 확인하며 치료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향후 재생치료제로 개발 가능한 임상 등급의 인간 장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나아가 세포를 공기 중에 노출해 분화를 유도하는 '기체-액체 계면 분화법'을 이용, 2차원 장 줄기세포를 입체적 구조를 가진 장 상피 세포로 분화하

는 기술도 개발했다. 이 스테레오 타입의 2.5차원 장 상피 세포 모델 시스템은 실제 인간의 소장을 모사할 수 있으며, 내강 접근도 용이해 다양한 질환 모델 제작과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미영 박사는 "재생치료제의 핵심 성분인 인간 장 줄기세포는 분리 배양이 어려워 동물 실험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 장기배양이 가능한 인간 정상 장 줄기세포 모델을 이용해 다양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연구팀이 이미 확보한 다양한 장 오가노이드 배양기술과 접목하여 기초연구 수준을 넘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1월 27일 종합과학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비타500향 약과·오란다. /광동제약.

광동제약 할매니얼 유행 반영 '약과·오란다' 출시

광동제약이 기존 제품들을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한다.

광동제약은 '할매니얼' 유행을 반영한 '비타500향약과·오란다'와 '광동쌍화약과'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할매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표현으로 추억의 간식이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기존 비타500과 광동쌍화 제품의 특징을 전통 한과에 적용했다.

비타500향약과·오란다는 오렌지 페이스트와 비타500향을 함유해 새콤달콤한 이색적인 맛과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를 갖췄다. 광동제약은 약과 특유의 꾸덕꾸덕함과 오란단의 쫄쫄하고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광동 쌍화약과는 10가지 식물성 원료를 넣은 진쌍화농축액, 생강에센스 등 건강한 재료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3년 10월 시제품 판매 당시 물량이 전량 소진되기도 했다.

이번 신제품은 한과 전문기업 호정가에서 3대째 전해오는 전통 비법을 바탕으로 제조했다. 개별 포장으로 휴대성도 높였다. 광동제약 공식몰 '광동상회'를 포함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대상,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 론칭

기능성 원료 담은 초콜릿 5종 출시 벨기에 초콜릿에 프리미엄 견과 사용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기능성 원료를 담은 신개념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신제품 초콜릿 5종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피키타카'는 색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핸드푸드 형태로 '간편호감식'을 표방해 기능성 원료를 보다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브랜드명 피키타카(PIKITAKA)는 '까다로운'을 뜻하는 'Picky'와 '짧고 간결한 패스', '물 흐르

듯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티키타카(Tiqui-taca)'의 합성어로 건강에 누구보다 까다로운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민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췄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29종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함유했을 경우 이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상은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어 열풍 속 현대인들의 변

화된 식습관에 주목해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강 간식으로 관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선보이는 신제품은 ▲아몬드 카라멜초코 ▲아몬드 베리초코 ▲캐슈넛 밀크초코 ▲마카다미아 요거초코 ▲아몬드 민트초코 등 초콜릿 5종이다. 5종 모두 벨기에산 초콜릿과 각각의 맛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견과류를 사용했으며, 저마다 다른 기능성 원료를 함유해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한편, 피키타카 초콜릿 5종은 지난 6일 카카오메이커스에 선공개 됐으며



대상이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신제품 초콜릿 5종을 선보였다. /대상

오는 1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후, 드러그스토어, 대형마트 등 판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롯데마트, 참치 뱃살 모듬회 '1만9900원'

참치데이 맞아 13일까지 할인판매

롯데마트는 참치데이(3월 7일)를 맞아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전 점에서 '참치 뱃살 모듬회(350g)'를 기존 판매가 대비 40% 할인한 1만9900원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준비한 참치회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뱃살로만 구성해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량어 중 가장 고급 어종으로 알려진 참다랑어의 '배꼽살'로 장식해 포인트를 줬고 성인 2명이 먹기 좋은 용량인 350g으로 제작했다.

또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롯데마트 송파점, 중계점을 포함한 20개점에서는 참치 원물을 해체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참치 해체소 시작 시간은 점



참치 뱃살 모듬회를 홍보하는 모델.

포별로 상이하며, 오후 3시부터 7시 이에 점포 수산 코너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체 작업 간 발생된 참치회는 곧바로 포장 용기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신선한 참치회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월드몰에 '마르디 메크르디 레쁘띠'

기존 매장 맞은편에 키즈매장 오픈

롯데백화점은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와 함께 글로벌 MZ세대에 이어 글로벌 키즈까지 사로잡기 위해 8일부터 기존 '마르디 메크르디' 매장 맞은편(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키즈 전문 매장인 '마르디 메크르디 레쁘띠'를 추가로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마르디 메크르디'의 키즈 라인인 '마르디 메크르디 레쁘띠'는 지난해 11월 한남동에 오픈한 공식 매장 1호를 오픈한 이후, 유통사에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마르디 메크르디 레쁘띠' 롯데월드몰에서는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마르디 메크르디'의 감성을 담은 다양

한 키즈 상품들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캐시미어 V넥 가디건 플라워, 스웨터츠 플라워마르디, 티셔츠 플라워마르디 블라썸 등으로 '마르디 메크르디'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플라워 그래픽'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코튼 자켓과 시어셔커 자켓 등 2024년 봄 신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 인테리어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다. '선인장을 좋아하는 따뜻한 나라의 갤러리'를 콘셉트로 아티스트 그룹 '스튜디오 콘크리트' 소속의 권철화 작가와 협업해 입구부터 내부 벽면, 가구까지 귀엽고 아기자기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최빛나 기자

GC녹십자 앱 '어떠케어' 봄맞이 영양제 기획전

GC녹십자의 건강 생활습관 앱 '어떠케어'가 봄철 건강과 환절기 면역력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행사를 선보인다. 어떠케어는 초특가 영양제 아울렛 o코몰(오기몰)에서 봄맞이 영양제 기획전을 열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o코몰 '봄맞이 기획전'에서는 ▲동국제약 '데일리 리포좀 비타민C' ▲유한메디카 '풍성한 비오틴엔 탑' ▲이너셋 '더 진한 홍삼' ▲더리얼 '알티지 오메가3 맥스' 등을 할인한다.

어떠케어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D가 포함된 20개 이상 건강기능식품들도 엄선해 소개한다. 면역력을 위해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 유형을 반영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 등이다.

/이청하 기자

긍정과 부정 사이 '예술과 기술 융·복합'



홍경안 역
시시일과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예술적 표현과 창조적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합 또는 교차시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미학체계를 구축하고 매체 및 표현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전과 구분되는 형태의 예술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표현의 한계를 희석시키며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색다른 조형의 영역을 제시한다. 혁신적인 기술로 전통적인 미적 관행을 개선하거나 변형시켜 양자 간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설치,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품, 디지털 플랫폼 등은 예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예술

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준다. 전자장치 내지는 디지털 매체, 기타 기술적 도구들이 예술의 과정과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읽을 수 있는 도시'(The Legible City)에서부터 지난 2월 영국 해리워드 갤러리에서 개막한 'When Forms Come Alive'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의 키네틱 작품 '사이라이트'(Shylight)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셀 수 없다. 여기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디어그룹인 에브리웨어(Everywhere)를 비롯해 예술가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의 집합체인 팀랩(TeamLab) 등도 포함된다. 올라프 엘리아손(Olafur Eliasson), 에바 파브레가스(Eva Fabregas),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 미셸 블라지(Michel Blazy) 등의 다양한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들 작품은 관객들에게 보다 몰입적, 촉각적, 상호작용적인 예술경험을 선사하며 예술가들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예술 관행을 허무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전적 레거시 아트(Legacy art)에서부터 이머시브 아트(몰입 체험형 예술), 증강현실(AR) 등의 최첨단 도구를 이용한 작품은 장르 간 학제 간 구획 없는 동시대미술의 흐름과도 맞닿는다. 인터랙션(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인 미술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방점을 둔 공간인 인터휴먼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시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다양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부작용도 없진 않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에 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시각적 만족'에 무게를 두거나 자본주의 시장이 마구잡

이로 전개하는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유명 중인 인스타그램(Instagrammable)한 전시들이 그 예이다. 이는 자칫 '기술이 곧 예술'이라는 잘못된 예술관을 심어줄 수 있다. '기술이 예술의 가치'인 양 여기는 오해의 여지도 있다. 물론 예술가들이 지나치게 도구화하고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 자생적 표현 능력의 상실과 피상적 감각체계의 학습에 따른 지적진화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술과 기술 융·복합에 대한 관심은 기술주도형 사회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술을 작품에 수용하면서 동시대 현실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적응하는 예술가가 증가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시대성을 뒷받침으로 한 미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 예술의 전부는 아니다. /미술평론가



동아제약, '여성의 날' 맞아 생리대 기부
동아제약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제약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템포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템포 내추럴 순면 패드'를 서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경북 상주시에 지원했다. /동아제약



롯데오토리스, 무공해차 전환 우수기업
롯데오토리스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이하K-EV100)'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훈 롯데오토리스 대표가 6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오토리스

아이오닉 5 '최고의 가족용 車' 수상

현대차, 페어런츠 어워즈서 선정 PE시스템·미래지향 디자인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유력 월간지 페어런츠 매거진이 주관한 '페어런츠 2024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가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SUV'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페어런츠 매거진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아동 발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 유력 월간지다. 매년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즈를 진행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편의 장비와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페어런츠는 "아이오닉 5는 우수한 파워일렉트릭(PE) 시스템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춰 가족용 차를 찾는 고객에게 탁월한 선택"이라며 "빠른 충전 속도와 우수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강점"이라고 말했다. 또 페어런츠는 가정집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제공하는 V2L 기능과 카시트를 장착한 채 아이를 돌볼 때도 불편함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 등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이오닉 5는 지난 2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 2025 최고의 SUV'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그룹,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후원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전주, 통영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와 한화클래식 등 수십 년간 문화예술 후원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화그룹은 하버드-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을 후원한다. 또 16일에는 통영국제음악제로 잘 알려진 물빛 음악도시 통영에서 한국 투어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공연이 한화그룹 주최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한화그룹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파리는 어째서' 등 2개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의 '파리는 어째서'와 '지구를 사랑한 비행' 캠페인이 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며, 올해는 총 290점이 출품됐다. /양성운 기자

최윤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

(OK금융그룹)
이번 선임에 따라 향후 3년간 활동한일 경제연계 확대 등 소통창구 역할
최윤 OK금융그룹회장(사진)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OK금융그룹은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일경제협회는 1981년 출범했다. 한·일 각 지역 경제단체와 손잡고 경제외교 활동을 추진한다. 최 회장은 이번 선임에 따라 향후 3년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한일 양국의 경제연계 확대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후배 기업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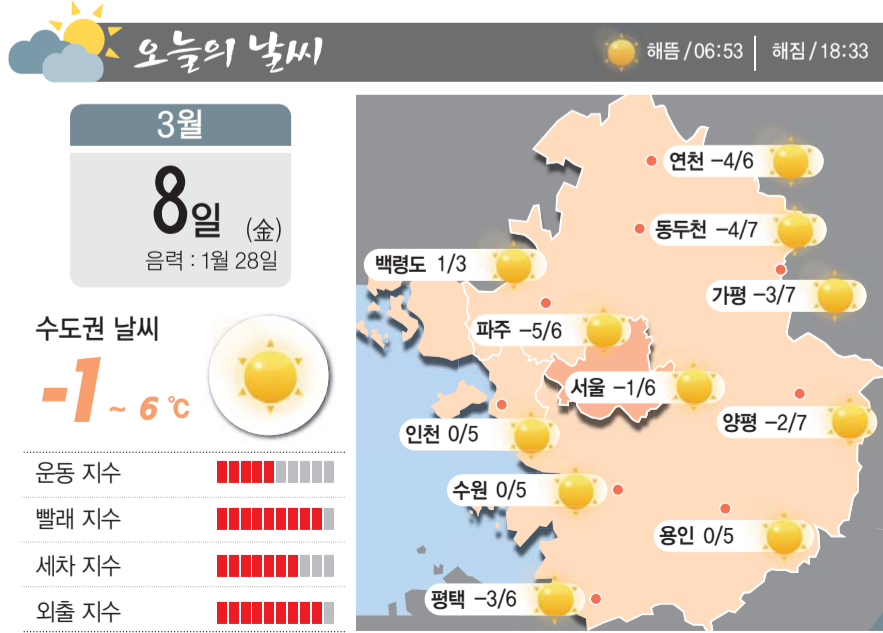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매칭 기프트'로 기부
아모레퍼시픽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제도를 올해도 실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 나눔 캠페인 '매칭 기프트'를 통해 105개 기관에 1억2000여 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hy, 프레시매니저 격려·소통의 장 마련
hy가 제53회 'hy대회'를 개최한다. 1971년을 시작으로 5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프레시매니저(FM)'를 위한 격려와 소통의 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일산 킨텍스(7일), 부산 벡스코(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21일)에서 각각 개최한다. 총 3000명의 FM이 참여한다. /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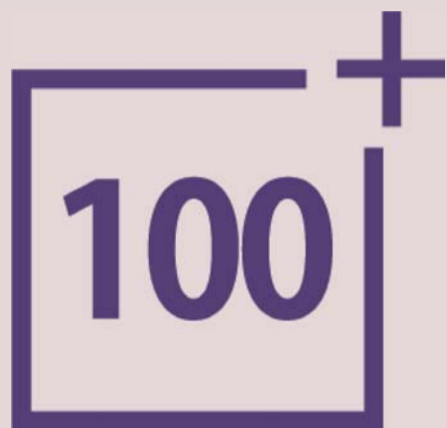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표 인지행동치료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가 지난 2일 인도 의과학대학(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 AIIMS)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인지행동치료학회'에서 '제1회 아시아 아론벡 인지행동치료 학술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최기홍 교수는 "인지행동치료의 보급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인사**
- ◆한국연구재단 ◇단장 선임 △생명과학 단장 정기홍
 -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 임명 및 보직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이사 임명 △김재관 인재개발팀장 △박진동 기획조정팀장
 - ◆제주대학교 ◇부총장급 △교육부총장 강희경 △지산학연구부총장 강철웅 ◇처장급 △교무처장 정승달 △학생진로취업처장 현미열 △기획처장 강태영

- 부음**
- ▲이시영씨 별세, 이규하(국민의힘 부산시장 조직차장)씨 부친상 = 7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온종합병원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30분. 051-607-0111
 - ▲이종식씨 별세, 이상규(DN솔루션즈)노사/EHS실 노사파트 책임매니저·이재영·이상희씨 부친상 = 7일 오전, 김해시 장유 1동 갑골장유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55-314-5533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한국경제의 피크, 기우인가 현실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된 잠재성장률(1.9%)보다 낮았다. 2024년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2024년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예측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1~2.2% 수준이다. OECD는 작년 11월 전망치 2.3%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수정치에서는 2.2%로 낮췄다.

온기에 목마른 국민 기대와는 달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가 지금이 제일 좋고 앞으로 악화가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일컫는 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 말이 학자와 실무계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의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인구의 불균형 측면과 이의 심각성을 주시하자. 우리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이어야 한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까지 줄곧 1.2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2018년부터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0.78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 경제에서 총소비의 축소와 이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을 가져오는 물론이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KOSIS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4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에서 2024년 42.5이고, 2030년 50.2이고, 2040년엔 72.4, 2050년 92.7, 2058년엔 101.2를 넘어지게 된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주목해보자. 저출산과 높은 부양비 구도 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회원국 38개국 평균치인 53달러보다 낮은 42.9달러로서 2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다음으로,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살펴보자. 2024년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놀라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큰 미국이 1.9%로 우리보다 높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덩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 일이 바로 올해라는 시점에 두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경제의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크코리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같다. 이의 원인을 알기에 우리가 늦지 않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도 가능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피크코리아를 극복해야 한다.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한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에 매진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밸류업 ‘눈치싸움’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

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 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8일 (금 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 풀린다. 48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 60년생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이지 말 것. 72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니 일찍 서둘러라. 84년생 복은 겸손에서 생긴다.



37년생 선봉에 나서면 남들의 시기를 받는다. 4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만남을. 6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3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85년생 자식 자랑에서 근심이 발생.



38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0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62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성공은 노력에서 시작이니 정진하자. 86년생 돈 자랑하려면 먼저 나누고 시작을.



39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51년생 망설임은 행운을 차는 결과를 가져온다. 6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75년생 실력을 활용하여 성과가 발생한다. 87년생 관계없는 일에 참견 마라.



40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가 있다. 5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가 좋다. 76년생 직장상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 감사. 88년생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41년생 중심을 바로 세워야 주변의 원망을 듣지 않는다. 53년생 개띠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있다. 65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해준다. 7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살 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89년생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해결되는 일이다.



42년생 과거의 가치관에서 회미해져 가는 현실을 직시. 54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니 적당히. 66년생 멀리 떠나는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78년생 두 손에 떡을 들고 어느 것을 먹지 고민. 90년생 인연이 순리로 온다.



43년생 가정에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55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다. 67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곧 오겠다. 7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진중하게 행동하라. 91년생 뇌물성 선물을 경계해야.



44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즐거운 하루. 56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술술 잘 풀린다. 68년생 상태를 힐끔다가 구설수가 있겠다. 80년생 우물이 있으니 두레박을 찾으면 성공이다. 92년생 먼 염려가 없으면 가까이에서 근심이 생기게 마련.



45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57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는 법. 69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도를 벗어날 입방아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날. 81년생 밭길 유의. 93년생 가을 지나 겨울 채비를 해야.



46년생 어제의 걱정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날. 58년생 나이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70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다. 82년생 겸손에서 스트레스가 멀어진다. 94년생 복작 방면에서 귀인이 온다.



47년생 독감 조심. 59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니 겸손하게. 71년생 자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95년생 준비된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못한 외부의 곤경에 대해서도 방어막이 형성될 수 있음이다.



김상회의四季 재테크와 운세

운세가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투자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누구라도 선택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는 것도 별반 없으면서 뛰어드는 것이다. 올해 대운이 좋다고 하더라, 재물이 들어오는 운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부동산이 나을지 주식이 나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산을 걸어야 하는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자기가 어떤 방식의 투자에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위험한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사주나 개인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주식으로 손해 본 사람이 부동산으로는 돈을 버는 게 그런 경우이다.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제 사주라면 주식보다는 은행 적금에 더 적합하다. 감정을 스스로 가다듬고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라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냉정하고 신중해서 예금으로 큰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손실도 나지 않는다. 토사는 땅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토가 강한 사주는 부동산과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신강신사주는 재물을 모으는 건 물론이고 투자 유지하는데도 뛰어나다. 이렇게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며 투자를 하겠다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이 들떠 있다는 것이다. 투자는 전쟁과 같다. 사력을 다해 싸움을 벌이는 곳에 사주의 도움을 받아 어느 쪽이 성향에 맞을지도 살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 운세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조금 늦게 한다고 좋은 운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투자에 나서기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1 5		8
1				
8		3 6 7		
9 2				1
4				7
5				8 9
		6 7 8		4
				6
5		1 2	7	

9 3			4 6 7	
	7 2			
				8 3
3		5 2		4
			8	
2		4 9		5
	2 5			
			8 5	
4 8 7				9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2 7 2 1 8 9 9
2 9 8 6 8 9 7 2 1
7 9 1 8 2 9 2 6 8
6 8 2 7 2 2 8 9 9
2 8 9 9 6 2 1 8 7
9 1 7 8 9 8 2 2 6
1 7 6 2 9 8 9 7 8
9 7 8 2 8 6 9 1 2
8 2 9 9 1 7 6 8 2

9 6 8 9 2 2 8 7 1
2 2 9 8 7 1 8 6 9
8 7 1 9 6 8 9 2 2
9 9 2 6 8 7 1 8 2
8 1 2 2 8 9 6 9 7
7 8 6 2 1 9 9 2 8
2 8 8 1 2 6 7 9 9
6 9 7 8 9 2 2 1 8
1 2 9 7 9 8 2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ok tok)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균형감이 철학”... 와인의 ‘골디락스’ 꿈꾼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美 캘리포니아 소노마 ‘센시스’

가끔씩, 아니 매번 아쉽다. 품질이 좋으면 비싸고, 예쁘게 싸게 샀더니 결국 싼 티가 난다.

소비자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좋으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가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볼 때도 제값만 하면 좋을 터.

와인이라고 다를 리 없다. 저마다의 개성은 눈여겨볼 만 하지만 균형감을 갖춘 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라 과실미가 폭발한다 싶으면 과하기만 하고, 서늘한 곳에서 산미를 키웠더니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



크리스토퍼 스트리어터 센시스 창업자. /나라셀라

이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골디락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50년대, 60년대 생은 꿈도 안꿨다. 70년대 생도 지역, 혹은 테루아에 따른 차이로만 치부해버렸다. 80년대 생이라서 다른걸까. 맥스(Max), 크리스(Chris), 마일즈(Myles)까지 1988년생 세 명, 본인

들의 첫 글자를 딴 와인을 만든 이들은 골디락스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골디락스를 해내는 것이야말로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어터 센시스 창업자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리버벨리에 담긴 테루아의 저력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리

미업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와인 뿐 아니라 모든 일은 균형감을 맞추는 것이 센시스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센시스가 내놓은 와인을 맛 본 이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과연 미국의 소노마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프랑스 부르그뉴, 그것도 몽라쉴레라고 답했을 거라고.

캘리포니아의 빛나는 햇살이 짜릿짜릿한 산미를 만났다. 캘리포니아식 골디락스인 셈인데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했다. 센시스의 화이트 와인이 ‘소노마의 몽라쉴레’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가능한 옷을 덜 입히려고 노력했다.” 크리스토퍼의 말이다.

포도밭, 포도 본연의 향과 맛에 집중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서 밸런스 포인트를 찾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의 샤도네이를 새롭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센시스 델 디아블로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센시스 포도밭 가운데서도 내륙에 위치해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지만 과실미와 산도를 높게 유지했다. ‘센시스 찰스 하인츠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화이트 와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만큼 힘이 넘쳤다. 둘 다 앞으로 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센시스 엠씨엠 88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들이 생년과 이름 앞글자를 따서 네이밍했다. 어디가 산지인가 싶을만큼 초콜릿 민트향과 함께 야생고기향이 진하고, 구조감이 도드라진다. ‘센시스 데이 윈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가 센시스를 세우고 말 그대로 첫째날에 내놓은 와인이다. 코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빨간 장미의 화려한 향과 라벤더에 숲의 바닥에서 날 법한 나무의 향이 집약적이다.

/smah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이창동 감독의 시선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 읽은 ‘버닝 각본집’이 그랬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등장 인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주요 인물은 벤, 해미, 종수 세 명이 전부다. 인셉션처럼 복잡한 플롯도 아닌데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를 2~3번씩 읽고, 책의 앞뒤에 붙은 감독의 말과 인터뷰를 전부 정독해도 버닝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각본집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이창동 감독은 벤이라는 캐릭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버닝 촬영 막바지에 감독이 배우에게 지나가는 말로 ‘벤이 연쇄 살인범이었을 것 같냐’고 묻자 스티븐 연(벤역)은 “대답하지 않래요. 나만 알고 있겠”이라며 웃었다고.

재밌는 건 버닝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도 전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옆에 얼굴 정도는 벤이 해미를 죽여서 종수가 그를 살해한 거라고 했다. 누구는 벤이 해미를 죽인 게 아니고 종수가 그녀를 살해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벤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미도, 벤도 전부 소설가 지망생인 종수가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인물이라는 대답도 나왔다.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창동 감독의 작가론, 작품론, 인터뷰가 수록된 책이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김혜리 영화평론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새로운 ‘나’가 되길 꿈꾸는 주인공들의 바람이 상상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감독은 “원하지 않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전주국제영화제 기획/아름

고 예상치 못했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이다”며 “달리 말하면 예측 못 한 사태가 닥쳤을 때 인물이 어떻게 그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내느냐가 내 관심사”고 이야기한다.

‘버닝에서 어디까지가 종수의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적 사실인지 모호하다. 창작자로서 상대적으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안 했나’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감독은 “버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구조가 가진 불투명함 자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이야기”라며 “어디까지가 종수의 소설이나는 부분은 지엽적이다”고 선을 긋는다.

그제사 책의 머리말에서 영화평론가 장 프랑수아 로제가 “이창동 영화가 암시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오직 예외적으로 참여한 현실 인식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분투하는 시네아스트들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한 이유를 알게 됐다.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기생충 마인드

책은 전 세계 학계가 다양성과 포용성, 공정이라는 구호에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사람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사상을 기생충, 전염병에 빗댄다. 전파력이 강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는 과학을 배격하거나 부정하는 새로운 ‘전염병적’ 사상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온한 사상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말한다.

자유 사회에서 지적 태만이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진실을 왜곡해 흑세무민하는 어용 지식인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동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336쪽. 2만원.

가드 사드 지음/이연수 옮김/양문



불통의 중국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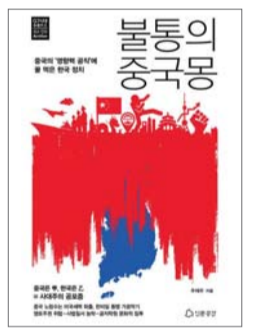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책에 따르면,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해 중국 포비아(phobia)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포심을 확산하

는 것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한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사대주의의 식에 젖어 저자세 외교로 중국에 대응해왔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사태를 타개할 ‘극중팔계(克中八計)’를 제시한다. 288쪽. 3만원.

주재우 지음/인문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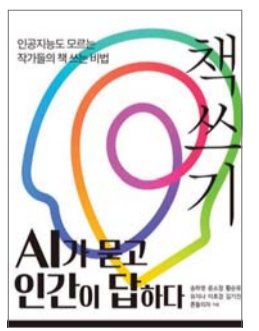
책쓰기 AI가 묻고 인간이 답하다

‘책쓰기 AI가 묻고 인간이 답하다’는 인공지능도 모르는 작가들의 출간 경험을 공유한 책이다. 피아니스트, 한의사, 시인, 방송인, 초등교사, HR 전문가, 출판사 대표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공력을 들인 저자들이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자는 뜻을 모아 세상에 나오게 됐다.

흥미로운 건 챗GPT에게 각자의 경험과 의도를 알려 주고 묻고 싶은 질문을 추렸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엔 책 쓰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서 같지만, 책은 ‘당신은 왜 책을 써야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AI는 묻는다. “인간은 왜 책을 쓰려고 하나?”

256쪽. 1만7000원

송하영 외 6명 지음/흔들의자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닛케이, 이익 확정 매도에 4만선 밀 급락... 엔고도 부담
▲ 中양이 “北 안보 우려 해소해야”... 韓 “北비핵화 중의의 부합” /사진 뉴시스

▲ “이젠 ‘한국 문학’이 뜬다”... 韓가디언 K-컬처 성공 주목
▲ EU “北 핵실험 재개 정황 우려... 북 러 군사협력 규탄”



▲ 우크라이나 정보국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절반은 불량”
▲ 중국 1~2월 수출 7.1% ↑... “자동차·반도체 견인” /사진 뉴시스



단지 내 산책로(왼쪽)와 조형물.



그림같은 나무 아래 사슴가족... 바쁜 일상서 '일시정지'

유치원, 초·중·고 등 도보권 최고 29층, 16개동, 총 1304가구 조망·채광 등 고려 남향위주 배치
국토부 시공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옥정중앙호수공원 잇는 공원 조성
천보산·선돌근린공원 등 인접 중앙 수변공간에 수생 비오톱 GX룸·실내수영장 등 갖춰



아파트의 미학(美學) 제일풍경채옥정

최근 찾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제일풍경채 옥정'.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 2번 출구에서 99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솔빛유치원과 옥빛초·중·고등학교, 연푸른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공원과 하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 주민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주옥정지구 A19-2블록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6개동, 총 130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64~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전용면적 16㎡부터 42㎡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상가 총 32실도 함께 들어섰다.

아파트 정문에는 '풍경채'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지상에는 보행자를 고려해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를 조성,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에서 실적 1위를 수상했다"면서 "단지 바로 옆에는 옥정중앙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이 위치하며 천보산, 선돌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제일풍경채 옥정'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톱을 조성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잔디광장에는 나무와 사슴을 조형화 한 '산들바람'이 설치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담은 파스텔톤의 나무 조형물은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단지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와 정원 등도 조성돼 있어 입주민이 테이블과 벤치가 앉아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자녀들을 위한 플튼바이시스 어학원과 키즈카페가 들어섰다.

단지 내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정글 숲 속을 모티브로 만든 유아전용 놀이터가 설치됐다.

숲 속 커다란 그루터기, 경찰서, 오두막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글·사진=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조경 모습. ②, ③ 테마놀이터와 ④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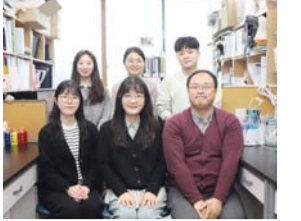


근본 챙기는 보험사
'뇌·심장·암'
3대질병 보장 강화
08



Life

고순도 줄기세포
대량 배양기술 개발
재생치료 기대
니



3분카레부터 이색카레까지... 55년 '황금빛' 밥상 책임지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오뚜기 카레

1969년, 우리 입맛에 맞는 카레 출시
강한 향에 인기 없던 음식 대중화시켜
가정간편식 시초인 '3분카레'로 발전

특정 분야를 대표하거나 오랜 시간 사랑받는 대상 앞에는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969년 출시된 '오뚜기 카레'는 최초의 분말 형태로 시작해 가정간편식의 시초라 불리는 레토르트 형태의 '3분 카레'로 발전하며 명실공히 '국민 카레'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출시 55주년을 맞은 오뚜기 카레는 건강한 맛과 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국내 분말카레 시장은 약 73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오뚜기의 점유율은 약 85%에 이른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분 카레'를 포함한 3분 요리류의 점유율 역시 오뚜기가 77.4%(2022년말 수량 기준)를 차지하로 선두를 유지 중이다.

오뚜기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큼한 지중해산 토마토의 풍미를 더한 카레, 100% 비건 재료만 사용한 카레, 세계 각지의 맛을 살린 이색 카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인 입맛에 맞춰 대중화 선도

대표적인 인도 음식인 '카레'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40년대다. 특유의 강한 향으로 당시 국내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던 카레는 1970년대 오뚜기에 의해 대중화됐다.

1960년대까지도 카레는 한국인이 즐기는 음식은 아니었다. 살림 현행이 좋은 부유층이나 일부 고급식당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카레의 가능성을 믿고 1969년 5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입맛에 맞게 분말 타입인 '오뚜기 분말 즉석카레'를 내놓았다.

당시 내놓은 오뚜기 즉석카레는 기존 타사 제품인 '스타 카레분'과 큰 차별성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함태호 명예회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향을 살린 카레라는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오뚜기 카레는 국내에서 선보인 최초의 카레 제품은 아니었지만, 보관과 긴 유통기간에 적합한 분말타입, 다른 식재료만 있으면 바로 요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선보이면



오뚜기 오즈키친 세계카레 라인업 6종. ①치킨마살라, ②비프코르마, ③포크빈달루, ④키마카레, ⑤푸팟풍카레, ⑥ 치킨마크니.

꾸준한 연구개발로 맛·품질 향상 노력
지중해산 토마토, 이국적 고행카레 선배
인도, 태국 등 각국의 맛 살린 '오즈키친'
소비자 성향 맞춘 비건·웰빙제품 출시도

서 카레 대중화의 가능성을 높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카레가 우리 식생활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했다.

분말 형태로 출발한 오뚜기 카레는 1981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레토르트 형태의 '3분 카레'로 발전했고, 이후 맛과 영양 성분을 강화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업그레이드된 '고형 카레' 탄생

오뚜기 카레가 긴 시간 사랑받는 비결은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있다. 국내 카레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오뚜기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오뚜기는 독자적인 노하우로 만든 카레에 지중해 햇빛 아래 잘 익은 토마토를 더한 '지중해산 토마토 카레'를 출시했다. 2017년 '오뚜기 3일 숙성카레' 고행제품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고행카레로, 새콤달콤한 토마토의 감칠맛과 오레가노, 월계수잎, 코리안더 등 스파이스믹스의 이국적인 향미가 일품이다.

오뚜기는 토마토를 가열해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잘 익은 토마토를 담은 카레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지중해산 토마토 카레'는 1인분씩 소포장돼 조리 및 보관이 간편하며, 돈가스나 오믈리스 등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다.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식용유에 볶은 뒤, 물과 고행카레를 넣고 점도가 높아질 때까지 끓이면 맛있는 카레가 완성된다.

◆웰빙·비건·프리미엄 등 제품 라인업 확대

오뚜기는 웰빙 열풍이 한창이던 2004년에는 강황 함량을 57.4% 늘리고 로즈마리, 월계수잎 등을 넣은 '백색카레'를 선보였으며, 2009년에는 조리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물에 더 잘 녹는 과립형 카레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오즈키친 세계카레 2종.



오뚜기 지중해산 토마토 카레.

2012년에는 발효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해 '발효강황카레'를 출시했고, 2014년에는 렌틸콩을 주원료로 한 '3분 렌틸콩카레'를 선보였다. 2017년에는 쇠고기와 과일, 사과를 3일간 숙성한 소스에 향신료를 더한 '3일 숙성 카레'를, 2020년에는 기존 카레 대비 나트륨은 낮추고 칼슘과 DHA를 첨가한 '어린이 카레'를 시장에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5월에는 비건 전문 브랜드 '헬로베지(Hello Veggie)' 론칭과 함께 '채소가득카레'를, 8월에는 프리미엄 HMR 브랜드 '오즈키친'을 통해 세계 각국의 맛을 살린 카레를 선보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내 카레 시장 1위인 '오뚜기 카레'로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채로운 원료를 활용하고, 이색적인 맛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품으로써 폭넓은 소비층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뚜기 카레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최강 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모드 ON'...국가대표 3차 선발전 /사진 뉴시스
▲손흥민 "은퇴 전까지 결혼 생각 없어...축구에만 집중하고파"

▲이강인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10일 랭스전 한글 유니폼 착용
▲김하성, 샌디에이고와 연장 계약?... "몇 주 전보다 가능성 낙관적"



▲'첫승' U-20 여자축구, 9일 우즈베크전서 아시안컵 4강 진출 노려
▲'K리그 흥행 카드' FC서울 링가드, 홈 개막전서 이름값 증명하나 /사진 뉴시스